



즉시 배포용: 2019년 2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와 생식력 보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2019년 여성 사법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 방안 발표

법안은 대형 그룹 보험 회사의 체외 수정(IVF) 보험 적용과 의학적으로 필요한 생식력 보존을 위한 보험 적용을 의무화

체외 수정(IVF) 보험 적용 범위를 불임 치료 보장 의무에 포함하는 것을 다루는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의 [분석](#)

보험 적용 범위는 결혼 여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나이 및 사회경제적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식력 서비스를 보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생식력 보존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2019년 여성 사법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대형 그룹 보험 회사들이 체외 수정(IVF) 서비스를 보험회사의 적용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대형, 소형, 개별 그룹 보험 회사들의 경우, 암 치료를 받는 여성을 포함하여 특정 건강 상태의 여성을 위한 난자 냉동 보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결혼 여부, 나이, 성적 취향 및/또는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뉴욕 주민이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여성 어젠다(Women's Agenda)의 일환으로 주지사가 지시하여, 오늘 발표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타당성 [조사](#) 분석을 따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나이, 인종,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이 접근하는 생식 건강권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형 보험 회사들이 체외 수정(IVF)과 생식력 보존 서비스의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가족을 꾸릴 것인지 결정할 때 사람들이 직면하는 많은 경제적 장벽을 없애고, 우리의 국가 주도적인 여성 사법 어젠다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의 적용이 없으면, 체외 수정의 높은 비용은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며 사회에 부과되는 불공평한 생식 세금을 부과합니다. 체외 수정(IVF)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일은 여성 사법 어젠다(Women's Justice Agenda)의 일환으로, 우리 주 모든 여성에게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노력입니다. 급진적인 수단과는 상관없이, 가족을 꾸리려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그럴 기회를 줘야 합니다. 모든 개인이 누구를 사랑하든, 수입이 얼마든 간에 최신의 의학 진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및 소녀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 겸 주지사 비서인 Melissa DeRosa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임신 시기에 대해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개인이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바꾸는 결정에 직면해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여성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하며, 이러한 강력한 제안은 이 투쟁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Financial Services)의 Linda A. Lacey 감독관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보험 범규에 대한 타당한 접근을 통해 주지사의 노력을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중요한 생식 건강 관리 범위의 신중한 확대를 나타내며, 많은 뉴욕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혜택을 포함합니다.”

체외 수정(IVF)은 동성 커플이나 미혼 여성을 포함한 생식력 장애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불임은 약 10 퍼센트의 부부에게 영향을 미치고, 약 12 퍼센트의 여성들이 임신하거나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체외수정(IVF)의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혼 여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사람들이 더 널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식력 보존(Fertility Preservation)은 암이나 아이를 가지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기타 환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일부 고용주들이 이러한 혜택에 대한 보험 적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비용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주요한 장벽입니다.

작년에 **Cuomo** 주지사는 금융서비스부(DFS)에 체외수정(IVF) 보험 적용 범위를 뉴욕의 기존 불임 치료 보상 의무에 포함하기 위한 접근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금융서비스부(DFS)는 기존의 보험 적용 범위와 다른 주들의 법률을 조사했고, 보험 계리 회사인 **Wakely Consulting, Inc.**을 고용하여 재무 분석을 실행하고 그러한 보험 적용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잠재적인 보험료 영향을 예측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그러한 보험 적용 범위의 중요성, 서비스에 대한 수요, 보험료 영향뿐만 아니라 노동 인구에서 여성 및 동성 평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기타 혜택을 고려합니다.

금융서비스부(DFS) 분석

금융서비스부(DFS)는 불임에 대한 보험 법(Insurance Law)의 정의를 수정하여, 암이나 생식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기타 환자들에게 저장 비용을 포함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생식력 보존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포함하는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또한 체외수정(IVF)의 보험 적용 범위를 대한 다음의 변수를 분석했습니다:

사이클 제한: 만일 체외수정(IVF) 의무 사항에 사이클 제한을 포함한다면 “사이클”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 성적 취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 체외 수정(IVF) 혜택은 결혼 여부,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쓰일 것입니다. 현재 금융서비스부(DFS) 정책들과 일치하게, 미혼의 개인과 동성 커플도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제한: 나이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체외 수정(IVF) 혜택을 고려합니다. 체외 수정(IVF) 보험 적용 범위는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검토될 수 있고, 현재 뉴욕 법에 따라 소비자가 외부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불임 치료에는 뉴욕의 현재 나이 제한(44 세 까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합니다.

절차상 장애 금지: 현재, 다른 주들에서는 체외 수정(IVF)을 허용하기 전에 다른 보조 생식 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각 절차의 유형은 자체적인 위험과 보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은 이러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고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치료법과 시기에 대한 결정과 검토는 현재 뉴욕 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외부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 방안은 주지사의 2019 년 여성 사법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담하면서도 포괄적인 본 제안은 모든 뉴욕 여성을 위해 생식권과 경제 및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지사의 2018 년 여성 어젠다의 성공에 기반합니다. 2019 년 여성 어젠다(Women's Justice Agenda)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